

# “좋은 사람’ 뽑아 신바람나게 일하는 것이 ‘좋은 경영’”

## 이강호 PMG 회장 강연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다’ 주제 부러먹지 않는 리더십 발휘해야

장수기업 경영노하우 지향하고 개인의 인성에 적합한 직무 배치

“시작도 끝도 결국은 사람이다. 리더는 좋은 사람을 채용해서 신나게 일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강호 PMG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KPC) CEO 북클럽에서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책 ‘사람 생각’의 저자인 이 회장은 이날 책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인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경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37년간 CEO로 경영에 참여하며 여러 회사와 많은 사람을 거치며 경험을 쌓아왔다.

그가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이다.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5차 산업혁



이강호 PMG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KPC) CEO 북클럽에서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KPC

명 시대가 오더라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람(직원)을 부러먹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을 키워주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구성원의 능력과 품격이 그 기업 자체의 능력과 품격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어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등 혁신 기업은 사람을 중심에 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람에게

서 찾을 수 있는 경영 핵심 키워드로는 생각, 만남, 사람, 도전, 지속가능성, 장수CEO 등 6가지를 꼽았다.

이 회장은 ‘좋은 경영’을 ‘좋은 사람이 채용해서 좋은 사람이 신나게 일하는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람에 대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 개개인을 진단해서 직무에 적합한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해서 신바

람이 나도록 일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인사관리를 통해서 사람이 타고난 인성을 파악하고, 개인의 인성과 직무가 적합하도록 해주면 신바람이 나서 생산성 높게 일할 수 있다”며 조직의 감성 생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장수하는 CEO가 되기 위해서는 “승자의 뒷에 빠지지 말고 장수하는 기업만이 아는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리더의 가치관과 품격이 기반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두바이의 기적을 이룬 셰이크 모하메드를 언급하며 프레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모하메드는 황량한 사막을 48년 만에 눈부신 고층건물이 가득한 도시로 바꿔놓은 인물이다. 이 회장은 모하메드를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는 리더라고 보고 “한 사람의 리더가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면 한 사람의 인생, 기업, 국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수 있다”면서 생각의 프레임을 바꿀 것을 역설했다.

이어 “우물 안 개구리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드넓은 바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공간의 벽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정감영 한국생산성본부 고문은 이 회장의 강연이 끝난 후 “인간의 행동과 CEO의 전략은 프레임에서 결정되는데 프레임은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 책 속에서 만나는 사람, 생각 속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서 만들어진다”며 “리더는 프레임을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KPC CEO 북클럽은 2007년 개설되어 올해 13년째를 맞는 국내 최고의 독서 경영세미나 과정이다. 2016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적용할 최첨단 혁신 트렌드를 심층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9회차 강연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프로그램이 종료됐으며, 하반기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마케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트코인 등을 주제로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오는 8월 22일 첫 강연이 진행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젊은 LCC’ 비상준비 완료... “경쟁보단 협업, 수익보다 안전이 우선”

## 인터뷰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

말끔한 수트에 단정한 머리, 차분하고 여유 있는 말투와 표정. 1976년 생의 젊은 CEO(최고경영자)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첫 인상이다.

에어로케이의 ‘수장’ 강병호 대표는 지난 2017년 항공면허 첫 도전 이후 재수 끝에 올해 3월 신규 항공면허를 발급받았다. 강 대표에게서 그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강병호 대표는 “면허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기분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뻐던 날은 하루에 불과했다”며 “에어로케이의 비행기를 띄우는 그 날까지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각오를 다졌다.

강 대표는 국내 항공사 수장 중 가장 젊다. 항공업에 종사한 적은 없었지만 항공분야 관련 고등학교인 미국 플로리다 에어 아카데미를 다닌 경험이 있다. 자가용 비행기 면허 취득자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는 외국에 거주하며 선진 저비용 항공사(LCC)를 겪었다고 전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 버진 애틀랜틱 항공 등 ‘젊은 LCC’를 경험하며 항공산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가 맡은 에어로케이 역시 젊은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게 그의 경영철학이다.

현재 항공업계는 에어로케이를 포함해 에어프리미아와 플라잉윈 등



외국서 선진 LCC 겪고 자가용비행기 면허 취득 공항수수료 적어 기존보다 운임 30% 낮아져 대형사·LCC와 서로 협업... 경쟁사는 외항사

투명한 조직문화, ‘안전한 항공사’의 지름길 초반 국내선 집중... 향후 국제선 비중 90%로

신규 LCC 면허 취득으로 포화시장이라는 시각이 많다. 저비용항공사 간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에 대해 강병호 사장은 “항공사들 간에는 경쟁보단 협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협업을 위해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이 저비용항공사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진짜 경쟁자는 에어아시아 항공이나 비엠텍 항공과 같은 외항사”라고 밝혔다.

강 사장에 따르면 에어로케이의 강점은 청주공항을 모기로 두는데 있

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고객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고 공항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운임을 30% 낮출 수 있다. 에어로케이를 2차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초의 저비용항공사로 성장시킨다는 게 강 사장의 포부다.

며 “에어로케이를 최대한 투명한 조직으로 만드는 게 안전한 항공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에어로케이의 향후 행보가 궁금했다. 강 대표는 “초반에는 국내선(제주)을 위주로 띄우다가 국제선 비중을 90%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비행기 10대 이상 도입할 때까지는 국제선도 짧은 노선 위주로 취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에어로케이의 에어버스사의 A320 항공기 단일 기종 도입을 계획 중이다. 채용 규모는 미정이다. 지역 인재 채용도 준비 중이다.

한편 에어로케이의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2월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강 대표는 끝으로 “국내 시장은 스타트업이 진입하기에는 그 벽이 너무나 높다”며 “10년 후에는 에어로케이와 같은 스타트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는...
- ▲美 카네기 멜론대 경영학과
  - ▲美 플로리다 에어 아카데미(자가용 비행기 조종사)
  - ▲삼성KPMG FAS M&A 팀장
  - ▲맥쿼리인프라스트럭처채널리얼에셋부장
  - ▲EMP벨스타프라이빗에쿼티 사무
  - ▲CJE&M 글로벌 신사업개발·미래전략실 신사업 담당
  - ▲카파스 부사장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이사